



영화 '거룩한밤:데몬 헌터스' 30일 개봉

마동석, 범죄도시 시리즈 이어 제작
악마에 빙의된 여인 구하는 여정 그려
캐릭터들, 선한 역 벗어나 '다크 히어로'
침체된 국내 영화시장 흥행 여부 관심

“(영화 ‘범죄도시’처럼) 현실 기반의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판타지물이나 영화적 상상력으로 만든 작품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영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 (이하 ‘거룩한 밤’)의 주연이자 제작자 마동석이 24일 서울 삼정동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영화를 제작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거룩한 밤’은 악의 무리에 맞서 싸워온 해결사 바우(마동석 분)와 사론(서현), 김군(이다원)이 악마에 빙의된 은서(정지소)를 구하는 여정을 담았다.

마동석은 오컬트와 액션이란 서로 다른 장르의 결합이 이 영화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영화는 악마를 쫓는 구마 의식과 마동석의 액션을 같이 선보이는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색다르게 다가가려고 했다. 캐릭터들은 전형적인 선한 역에서 벗어나 어두운 면모를 보이는 ‘다크 히어로’의 성격도 띤다.

마동석은 “할리우드에서는 돈을 많이 들여 굉장하 큰 사이즈로 판타지를 만드는데, 더 적은 예산으로 (다크 히어로물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마동석은 임대하 감독과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많은 준비를 했다고 돌아봤다.

“단편 공포영화부터 장편 공포영화까지 정말 많이 봤어요. 가끔 (리모컨) 정지 버튼을 누르고 잠들었다가 새벽 3시에 буд다 깨진 상태에서 화면 속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 깨기도 하고 그랬죠. (웃음)”

마동석은 “(그간의) 오컬트 영화와 비슷하지 않게 만들려다 보니 너무 벗어나게 돼 변주를 주는 것으로 선택했다”며 “예술 영화는 아니니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영화는 오컬트 장르에 관해 진지한 접근을 보인다. 그 결과 퇴마사 사론을 맡은 배우 서현과 악마에 사로잡힌 은서를 연기한 정지소가 영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마동석은 “악마에 몸을 빼앗긴 은서와 사론의 싸움이 영화의 메인이라고 생각했다”며 “제 역할은 (구마 의식을) 방해하는 악귀를 처단해주는, 보디가드 개념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현을 기용한 배경에 대해선 “제가 (소녀시대) 수영과 작품을 하면서 (서현의) 얘기를 많이 들었다. 몸매 나쁜 것을 잘 안 먹고 되게 올바른 친구였다”며 “저런 사람이 (새롭게) 변했을 때, 더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답했다.

“정지소 배우는 착하고 귀여운 친구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구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용했어요. 제가 만약 악마에 빙의된다고 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웃음) 구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고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까 봐...”

마동석은 통상 배우를 기용할 때 기존 이미지가 아닌 다른 면

모를 보여 한다고 설명했다.

촬영 현장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도 제작자로서 마동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다. 그는 배우, 제작진의 인성까지도 확인하며 현장을 꾸려간다.

마동석은 ‘범죄도시’ 2편부터 4편까지 세 편 연달아 천만 관객을 넘긴 제작자이기도 하다. 공교롭게 최근 3년간 4~5월에 나온 ‘범죄도시’ 시리즈가 흥행에 성공해 이번에도 그의 작품이 최근 침체한 국내 극장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그는 이에 관해 “저한테 많이 (기대를) 걸지 말라”고 웃으며 말했다.

“정말 운 좋게 ‘범죄도시’ 2, 3, 4편 모두 천만 관객 이상을 기록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스코어여서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관객들이) 극장으로 많이 보러 오지 않아서 모든 제작자가 손익 분기점 넘기고 또 다른 작품을 하는 게 소원이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손익 분기점을 넘기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만 돼도 다른 작품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이번 ‘거룩한 밤’의 내용이 전체 세계관의 일부라면서 기회가 되면 영화뿐만 아니라 소설,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로 선보이고 싶다고 밝혔다. ‘거룩한 밤’의 앞 이야기를 담은 프리퀄은 현재 웹툰으로 연재되고 있다.

마동석은 ‘범죄도시’ 시리즈의 경우 네 편의 대본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며 내년엔 촬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범죄도시’는 8편까지 제작이 예정돼 있다.

“다양한 영화를 좋아해서 다양한 장르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따로 준비하는 영화 중에 헤비메탈 밴드 영화도 있어요. 다양하게 관심이 많습니다.”

/연합뉴스

로제 ‘아파트’ 빌보드 롱런

싱글 26주 진입...K팝 여자수 신기록



결그룹 블랙핑크의 로제(사진)가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APT.)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K팝 여성 가수 최장 진입 기록을 경신했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아파트’(APT.)는 ‘핫 100’에서 전주와 동일한 13위로 26주 연속 진입했다.

이는 결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지난 2023년 히트곡 ‘큐피드’(Cupid)로 기록한 ‘핫 100’ 25주 진입 기록을 뛰어 넘은 것이다.

현재 남녀를 통틀어 ‘핫 100’에 가장 오래 머문 K팝 노래는 비 연속 33주 진입에 성공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의 솔로 2집 타이틀곡 ‘후’(Who)다.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8위로 ‘핫 100’에 데뷔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 연초 반등해 최고 3위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이 곡이 수록된 로제의 솔로 1집 ‘로지’(rosie)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전주와 동일한 98위를 차지했다.

블랙핑크 동료 멤버 제니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대형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에 솔로로는 처음 출연해 인상 깊은 무대를 남긴 뒤 순위가 반등했다.

제니의 솔로 1집 타이틀곡 ‘라이크 제니’(like JENNIE)는 ‘핫 100’에 96위로 재진입했고, 이 곡이 실린 1집 ‘루비’(Ruby)는 ‘빌보드 200’에서 전주보다 7계단 오른 81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MBC, 교황 선종 추모 다큐 편성

MBC가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는 다큐멘터리를 편성했다.

MBC는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추모 양코르 다큐멘터리 2부작을 25일 밤 12시 5분에 방송한다”고 24일 밝혔다.

다큐멘터리는 1부 ‘파파! 프란치스코’와 2부 ‘교황의 길’로 구성됐다. 2014년 교황의 방한 당시 처음 방송된 작품으로, 교황청의 모습을 소개하고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간직한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돌아본다.

당시 제작진은 약 5개월간 아르헨티나, 바티칸,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현지 취재를 진행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의 역대 교황 묘역, 교황 선출 비밀회의가 열리는 시스티나 성당,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궁 대신 선택한 소박한 숙소 ‘성 마르타의 집’, 바티칸의 역사가 기록된 비밀문서고 내부 모습 등이 담겼다.

/연합뉴스

영화 ‘야당’ 개봉 8일만에 100만 돌파

황병국 감독의 영화 ‘야당’이 개봉 8일째인 23일 누적 관객 수 100만명을 넘겼다고 배급사 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지난 16일 극장에 걸린 이 영화는 개봉 후 줄곧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전날에는 개봉일 관객 수(8만5천여 명)보다 많은 9만1천여 명을 동원하며 개봉 2주 차에 흥행 속도가 붙고 있다.

‘야당’은 범죄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주고 이익을 쟁기는 브로커인 야당을 소재로 한 범죄물이다. 야당 이강수(강하늘 분)와 그와 공생하는 검사 구관희(유해진), 마약 밀매 조직 소탕에 모든 것을 건 검사 오상재(박해준)의 얽히고설킨 이야기를 그린다.

실제 관람객의 평가를 토대로 산정하는 CGV 골든에그지수에서 97%라는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주여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대 연 건 설 광주 동구 제봉로190번길 7-1 건설업·설비·토목 ☎ 062)236-1510, 010-2630-4820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안마의자, 식품화장품, 마사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	(주)대신수산유통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박 당 화 랑 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현승 ☎ 062)222-6866	민생 경공매 연구소 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122층 경력 30년 대표·토론식 직강! 재밌게 공부하며 함께 투자 가능 총 40시간 수강료 200만원/민법/집행법/행정법/기초경의 기초~실전 유제출산 특강 ☎ 010-7638-6918	석 당 화 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면 쟁 이 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 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밀,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 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온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파크랜드 광주 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2호 당신의 오늘을 위한 파크랜드. 가을, 겨울 신상품 50%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251, 010-8660-1557
도명 명리심리연구소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택일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광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지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찰청담배막걸리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로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 대 화 랑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풍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光州日報		